문화재보호법 개정

현상변경 대상 등 명확히

단 한 명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어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관계전문가 1/2 이상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을 5월 21일 공포했다.

이외에도 개정령에서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해당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막연하게 규정하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는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해 신고대상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관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규제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이번 개정령이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오체투지로 진실 말해"

오체투지순례단 서울 입성… 조계사서 시국법회

"사람, 생명, 평화의 길을 찾아 지난해 9월 4일 지리산을 떠난 오체투지순례단이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습니다."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불자와 서울 시민들의 환영 속에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정종훈 신부 등이 이끄는 오체투지순례단이 5월 21일 서울 시청광장, 청계광장을 거쳐 조계사까지 순례했다.

가장 낮게, 또 가장 느리게 하루 3km씩 자벌레 처럼 기어온 지 108일 되는 날이었다.

태풍과 같은 고난에도 멈춤 없이 진행된 오체투지 순례 앞에 내린 이날 봄비는 순례단 서울회향을 반기는 꽃비였다. 딱딱한 아스팔트길도, 더러워진 진흙길도 스스로를 참회하는 그 몸짓을 막을 순 없었다.

16일 남태령 서울 입성부터, 20일 명동성당 미사, 21일 조계사 법회까지 진행된 서울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정토회 등에서 참가한 1000여 명의 선지식들이 함께했다.

오후 5시 경 조계사에 당도한 순례단은 이어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사람, 생명, 평화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시국법회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시국발언을 통해 "부처님은 석가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 땡볕 아래 계셔서 코살라국의 악왕을 되돌렸다"며 "세 성직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지도자를 깨우치고자 108일째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 지도자는 감았던 눈을 뜨지 않고 막혔던 귀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언제 지도자가 눈을 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 성직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순례단에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시국법어를 통해 "입장, 감정, 욕망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말을 대신해 세 성직자는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 정부에 대해 두 손과 두 무릎, 이마로 묻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 대운하 추진, 방송법 개악추진 등에 대한 참회와 생명 평화에 대한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된 시국법회는 저녁 6시경 마무리됐다. 앞으로 순례단은 서울을 떠나 임진각 망배단을 향해 6월 6일까지 총 230km에 달하는 '참회의 길'에 오른다.

노덕현 기자

정조대왕 효행유적지에 아파트라니…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학계·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정조대왕 효문화 유적지 보존 범국민 연합'은 5월 20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경기도 화성 정조대왕 유적지 내 고층 아파트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 윤건릉 정조대왕 효문화 유적지 파괴중단 보존촉구 국민운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글 = 조동섭 사진 = 박재완 기자

나옹 선사 테마파크 조성 된다

경북 영덕군 400억 들여 다양한 선양사업 계획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고려 공민왕과 우왕 때 왕사를 지낸 나옹 선사의 테마파크가 경북 영덕군에 조성된다.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008년 10월 나옹 선사(1320~1376)가 출가하면서 소나무 지팡이를 꽂았다고 전해지는 영덕군 창수면 반송유적지에 선사의 사적비를 건립했다. 영덕군은 이와 함께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옹 선사가 창건한 장육사와 생가터 등을 관광벨트로 연결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옹 선사 진영.

이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18일 김병목 영덕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나옹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등 성역화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목 군수는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교육장소로 전 국민이 즐겨 찾는 불교성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반송유적지에 세워진 나옹 선사의 사적비는 길이 5m, 높이 3.4,에 무게 47t의 보령 오석(烏石)으로 제작됐다. 비문은 지관 스님이 직접 작문했다. 조동섭 기자

한중 불교문화교류 위한 육조재

한국육조재봉행위·중국 육조사 공동 주최

5월 21일 봉행된 제2회 육조재는 달마 대사의 주석처인 소림사·육조사와 한국불교의 문화 학술교류의 장이었다.

한국육조재 봉행위원회(위원장 연화)와 중국 광동성 육조사(방장 대원)는 공동으로 5월 21일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한중 불교문화교류를 위한 제2회 육조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호국국사단 부총재 동봉 스님, 석가종 종정 가산 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행위원장 연화 스님(소림선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조계선(曹溪禪) 사상으로 단합하고 한국과 중국 등 나라와 종파 구분 없이 정진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은 20일 입국, 21일 학술대회와 육조재를 봉행했다. 제1회 육조재는 2007년 12월 중국 육조사에서 봉행됐다. (02)720-6363 김성우 기자

경기도 종무 담당 부서 신설한다

종교인 사회 참여 유도 활동지원 목적

경기도가 종교단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종교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종무담당을 신설·운영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5월 8일 종교인구 증가와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정책과에 종무담당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예술진흥계가 담당했던 개신교와 가톨릭, 문화재 관련 부서가 담당했던 불교와 유교 등은 모두 문화정책과 내 종무담당이 총괄할 계획이다. 또한 종무부서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는 현재 5급 공무원 1명, 6급 3명, 7급 2명 등 총 6명의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수요가 충분히 발생됐으나 그동안 등한시됐던 종무부서가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종교단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북도와 제주도, 대전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문광부에서 종무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명, 법으로 판결할 수 없다"

불교생명윤리硏 '인간 존엄사 법 철회' 촉구

5월 21일 인간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추진되는 존엄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영담)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판결할 수 없다"며 "무의식인 국민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생명윤리연구소는 이어 △국가의 인간 생명 존속 책임 준수 △인간 존엄사 법 철회 △인간 생명 법 판시 불가를 주장했다. (02)734-6401 노덕현 기자

'자비동국 나눔축제' 열려

지구촌공생회·참사랑봉사단 26~28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단장 박상범)은 동국대학교 축제기간인 5월 26~28일 학내 팔정도와 동국관 앞에서 '제2회 자비동국 나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트게임, 진흙모방 쿠키판매, 물풍선 게임을 통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는 아이티 아이들 돕는 성금이 마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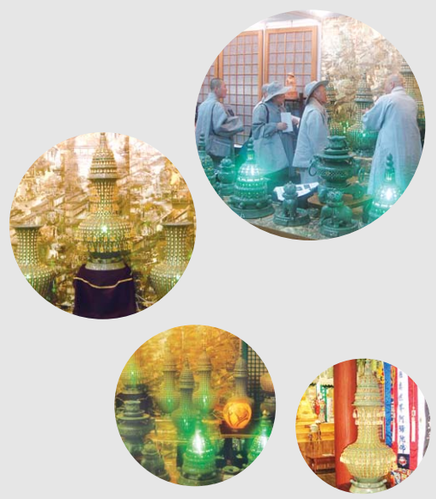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음식을 남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455-9596

노덕현 기자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